

2001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칼빈의 見解를 통해서 본  
이슬람에 대한 研究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신 정 희

칼빈의 見解를 통해서 본  
이슬람에 대한 研究

指導 김성봉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12월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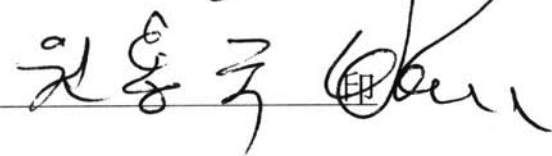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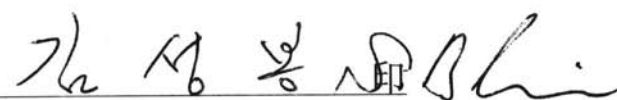
신 정 희

신정희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영  (印)

審査委員 권홍국  (印)

審査委員 신현광  (印)

審査委員 김성봉  (印)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1 년 12 월

## 감사의 글

태초부터 저를 향한 계획을 예비하시고 제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9년의 신학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식의 부요함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보고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시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려 주신 김영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가르침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제 삶을 통하여 열매로서 보답하고자 합니다.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김성봉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마다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논문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지도해 주신 친절한 배려와 사랑에 정중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원용국 교수님과 이은규 교수님의 논문을 위한 조언과 격려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정을 도와주신 양창국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진리를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이 길에 함께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 후배 그리고 함께 수업을 받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생 가운데 혼자가 아니고 앞서가는 교수님과 선배 또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외로운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동안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도록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넓은 마음과 기도로 도와주신 부모님들과 여러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함께 맛보고 나누는 나의 남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논문을 인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고, 수정해주고, 조언해준 그의 수고와 넓은 마음은 평생을 두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진리의 유산이 사랑하는 딸 세안에게도 동일한 유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01년 12월 겨울에 논문을 마치면서 신정희

# 목 차

I. 서론 -----	1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B. 연구 방법과 범위 -----	2
II. 이슬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3
A. 이슬람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	3
1. 이슬람의 기원 -----	3
2. 이슬람의 역사적 배경 -----	4
a. 이슬람의 확장 -----	4
b. 이슬람과 서방과의 관계 -----	5
B. 이슬람의 경전 -----	6
C. 이슬람의 교리 -----	8
D. 이슬람의 운명론 -----	11
III. 칼빈의 관점을 통해서 본 이슬람에 대한 해석 -----	14
A.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신13:1-8,18:15) -----	14
1. 선지자 꿈꾸는 자 -----	14

2. 모세 같은 선지자 -----	15
B.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신 29:25) -----	16
C. 적정과 절도의 원리(욥 4:13,15) -----	18
D. 예언서 해석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관점 -----	19
1. 다니엘 주석(2:34, 2:44, 7:7-20, 12:1-13) -----	19
a. 꿈을 주시는 이유 -----	19
b. 꿈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 -----	20
2.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2:8, 13-16) -----	22
3. 요한1서 주석(4:3,6) -----	25
4. 요한 계시록 9장 1-12절에 대한 해석 -----	26
a. 요한 계시록 9장 1-12절 내용 -----	27
b. 역사적인 해석 -----	27
c. 현대 주석가들의 다양한 견해 -----	30
d. 개혁신학에서의 견해 -----	31
E. 무슬림을 부르시는 하나님 -----	33
1. 세례받은 에돔 로마카톨릭 -----	33
2. 애굽사람 무슬림 -----	33
3.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 -----	34
 IV. 이슬람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	 36
A.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역 -----	36
B.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그릇 -----	37

V. 이슬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41

VI. 결론 -----45

참고문헌 ----- 47

# I. 서론

##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현재 세계 선교의 관심은 소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불리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10/40 window)에 거주하는 민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곳에서 가장 급성장 하는 종교는 바로 이슬람으로서 약 10억 정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 선교를 철저히 제한하면서 아랍권을 중심으로 검은 황금이라고 일컫는 오일달러를 앞세워 제2의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꿈꾸며 그들의 종교에 대한 선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교회의 이슬람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무함마드의 생애와 사상, 코란의 이해, 초기 이슬람 역사, 이슬람 교리와 신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슬람의 선교현황을 연구하여 소개함으로써 이슬람권 선교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슬람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7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해오고 있는 이슬람에 대하여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였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지금의 시대 상황 가운데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아울러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생각들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이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가를 배우고자 한다. 위대한 개혁주의자였던 존 칼빈(1509-64)은 동유럽에서 이슬람의 확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살았으며, 이슬람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는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로서 낙인찍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사 66:1-7)는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칠백여년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창세기 25장 12-28절에 언급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이슬람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규정짓지만, 무슬림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참여하게 될 택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의 우선 순위 가운데 이슬람권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신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선교사역 가운데 인간의 열심과 의지를 떠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강조하였던 칼빈의 저서들을 통하여 이슬람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함께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B.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슬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슬람이 무엇인지 논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슬람의 기원과 그 배경을 밝힘으로서 이슬람의 기원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고, 이슬람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코란의 위치와 이슬람의 교리를 통해, 비록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완전히 상반되는 두 교리인 이슬람의 운명론과 기독교의 예정론을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의 교리로서 예정론의 가치와 선교에 있어서의 예정론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둘째, 교회사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칼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Dr. Lee의 책 「Calvin on Islam」 과 「Islam in the Bible」 그리고 칼빈의 저서들을 통하여 이슬람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 캐나다에 있는 SWRB(still waters revival books)출판부에서 펴낸 6권의 책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역사학적인 해석의 자료를 통하여 이슬람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또한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서 이슬람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을 생각하고자 한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정론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운데 성경을 바라보았던 칼빈의 견해를 바탕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최종 원인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이슬람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에 대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이슬람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현재 이슬람 선교 사역의 올바른 자세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슬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A. 이슬람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 1. 이슬람의 기원

이슬람<sup>1)</sup>의 기원과 관련하여 소개된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이슬람’이라는 용어는 7세기 초반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와 메디나에 살았던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지만 무슬림들<sup>2)</sup>은 이슬람교 자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시대부터 존재해 왔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무함마드가 살았던 메카는 대상들의 중심 도시였고 알라의 전으로 알려진 카아바가 있는 곳이었다. 메카 뿐 아니라 아라비아와 전역에 기독교와 유대인들의<sup>3)</sup> 공동체들이 존재해 있었기에 종교적으로 무함마드는 아랍의 이교의 영향과 함께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David Steele의 「요한계시록주석(Notes on the Apocalypse)」에는 이슬람의 기원에 대해 무함마드와 네스트리우스<sup>4)</sup>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 항복, 순종을 의미한다. 종교로서 이슬람은 알라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나타내며 이 때문에 이 종교가 이슬람이라 불리는 것이다. 쿠르쉬드 아흐만, 「이슬람 그 의의와 메시지」(서울: 우리터, 1993), p. 30.
- 2)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 3) 노오만 앤더슨, 「세계의 종교들」, 민태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p. 133.
- 4) 네스트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이성교리에서가 아니라 한 인격의 교리면에서 불완전하다. 그들은 참되고 정당한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면서, 진정한 통일을 형성하여, 단일인격을 구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성은 역시 두 인격이기도 하다. 공통적으로 소유한 본질로서의 성과 또 그 성의 상관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의 인격과의 사이의 중요한 구별이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양성을 단일 자의식화 하는 대신에 그 둘을 도덕적이고 동정적인 연합에 불과하도록 하였다. 인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격의 소유자요, 하나님 지참자(God-bearer)였다.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네스토리우스주의의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완전히 정당화하려는데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증보자의 인격 위의 통일에 대한 모든 성경적 증거에 모순된다. 이 주의는 예수의 인격의 진정한 경건과 도덕적인 훌륭한 모범을 교회에 남겼으나, 모든 영적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근원인 신적 인간(divine-human)으로서의 구속주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주후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는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오히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며, 신성에 따라 만

“계시록9장1절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수사 세르기우스(Monk Sergius)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는 무함마드의 보좌주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네스트리안이라 불리우는 기독교파의 사도였다. 이 사도 수사 세르기우스는 교리적으로 이단임이 드러났으며, 또한 그의 부도덕한 행실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추방당했다. 그는 마귀를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는 꾸란을 만들 때 무함마드의 절대권력(dictator)자로서 무함마드를 섬겼다. 그리고 꾸란은 거룩한 성경에 정통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내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탁월한 사람이 그의 일을 마쳤을 때 그의 사기극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주인에 의해 수사 세르기우스는 죽임을 당했다.”<sup>5)</sup>

이렇게 이슬람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의 사제 중 한 사람의 의해 만들어진 종교로서 아랍어로 만들어진 꾸란은 아랍적인 색채를 가지고 무슬림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이슬람의 역사적 배경

### a. 이슬람의 확장

무함마드의 622년 메디나<sup>6)</sup>로의 대이주는 그들 자체의 정부, 법률, 기구 조직을 갖춘 나뉘대로의 독립적인 공동체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슬람은 무함마드 사후에 정통 하리파 시대에 돌입하는데, 4명의 할리마 중에서 3명이 동족 무슬림들에 의해 살해되는 등 정권 찬탈을 위한 피의 투쟁과 복수가 계속되면서 끝내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이 났다. 그후에 옴미야드 왕조(661-750)와 압바스 왕조(750-1258)로 이어지면서, 이슬람 제국은 이란, 북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스페인 등으로 종교적 영토적 팽창을 계속하였다. 한편 9세기를 전후로 해양무역을 석권한 아랍 상인들의 맹활약으로 이슬람은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로 전파되었다.

---

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후일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따라 성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로서 이성을 소유하셨으니, 이를 혼합되지 않게(asuggutos), 불변적으로(atreptos), 분할할 수 없이(adiaretos) 또는 분리할 수 없게(achoristos) 소유하셨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루이스 벨콕,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8), pp. 136-142를 참조하라.

5) David Steele, *Notes on the Apocalypse*, (Philadelphia: Still Waters Revival Books, 1870), pp. 113-114.

6) H.A.R. Gibb, 「이슬람」 이희수 외 1인 공역. (서울: 도서출판 주류성, 1997), p. 20.

10세기말 이슬람제국은 6세기 이전의 로마 제국처럼 군대의 힘이 약해지면서 국경 너머에 있는 터키계 부족민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에게 이슬람 제국의 종교, 법, 문명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 주었다. 후에 터키내의 터키계 부족민들은<sup>7)</sup> 무슬림이 되었고, 그들은 러시아의 남쪽과 우크라이나에 이슬람을 전파하였다. 다른 무슬림들은 인디아 남부, 말레이시아, 필리핀 서부, 인도네시아 등에 이슬람을 전하였고, 후에 아프리카 남부까지 세력을 넓혀 갔다.

750년에서 1258년까지는 압바시아 왕조가 바그다드를 통치했으며, 11세기 셀축제국의 아랍권 진출이후 서방 기독교 제국이 시작한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을 심화시켜 놓았다. 그후 몽고 침입으로 인한 분열과 통합을 이루면서 16세기에 이란의 사파위조, 인도의 무굴조, 오스만 터어키조의 3대 제국이 형성되어<sup>8)</sup> 이슬람 세계를 완성시켰다. 유럽세계의 동진으로 말미암아 한때 이슬람 개혁이 일어났으나, 18세기에 오스만제국과 무갈제국의 군사적 힘이 약해지면서 자본주의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아랍세계는 서구 기독교의 지배를 받게 된다.

## b. 이슬람과 서방과의 관계

20세기에 이르러 중동에 대한 서방 제국의 통치는 이슬람권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투르크족 및 이란족과의 이슬람 세계의 민족적 분열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학자들의 논쟁과 갈등이 가열되면서 민족주의 이슬람과 근본주의 이슬람이 발달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은 서구화와 근대화를 추구하는 이슬람이 주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 세계의 일방적인 지원은 중동 아랍 이슬람권에 반기독교 저항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저항 운동 과정에서 근본

7)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Caldwell-Morrow Lecturer in Church history at the Queensland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Brisbane, Australia, (2000) p. 1.

Francis Nigel Lee는 1934년 영국에서 태어 났으며 일곱 살 이후로 남아프리카에서 자라났다. 혼인하여 두 딸을 둔 그는 백 여권의 저서와 소책자, 많은 논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케이프 타운 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와 철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자유주 주립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설교가, 신학자, 법학자, 교육학자, 역사가, 철학자, 저술자이며 10개의 박사학위를 포함해서 20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CALVIN ON ISLAM*, *ISLAM IN THE BIBLE*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의 홈페이지([www.dr-fnlee.org](http://www.dr-fnlee.org))를 참조하라.

8) 콜린 채프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전재욱 역, (서울: 이슬람 연구소, 1996), pp. 45-46.

주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종교 감정에 호소하는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점점 확산되어 갔다.

이란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에 성공하게 되고, '알라신의 축복' 오일달러의 위력이 과시되면서, 세계 이슬람권에서 근본주의 이슬람의 위상은 매우 높아지게 되었지만 후에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구도로 발전하면서 이라크와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몰고 갔으며 이란의 포기로 종식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슬람 세계의 저항 운동은 일어났고 그때마다 미국과 서방 세력에 의해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다.

결프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저항운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군을 주둔시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이슬람 과격 단체의 반발은 소위 '테러' 라는 방식을 통하여 서구 기독교 국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장차 세계 선교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한국과 한국교회에 이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낳게 된 계기가 되었다.

## B. 이슬람의 경전

무슬림들은 4개의 경전 즉 모세오경(구약 성경이 아님), 다윗의 시편, 예수의 복음서(신약 성경이 아님)와 꾸란(경<sup>9)</sup>을 믿고 있다. 무슬림들은 꾸란이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언어나 이야기들을 모아 놓았기에 이 꾸란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신의 참된 말씀(the literal word of god)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무슬림들은 꾸란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9) '꾸란'(Koran 코란, Quran) 은 '암송' 또는 '낭송' 이라는 뜻이 있다. 이 말에는 공회에서 경전을 읽거나 가르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단어가 아랍으로 유입되면서 무슬림이 편집한 경전의 제목이 되었다.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신의 말씀으로 마지막 경전으로서 가장 으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보통 경전이라 하면 꾸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10) 필파살은 꾸란의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의 계시를 영원히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경전을 만들 것을 결심한다. 칼리프 우스만이 이슬람제국을 통치하던 651년경 23년간의 노력 끝에 꾸란이 만들어졌으며 우스만의 명령에 따라 정경에 포함될 것과 제외될 것이 결정되었다.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바로 우스만이 인정한 정본이다. 많은 이본들을 참고로 하였고 계시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꾸란의 장을 길이에 따라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필 파살, 「십자가와 초승달」 이숙희 역, (서울: 조이 선교회, 1995), p. 50. 참조.

일점 일획도 틀림없는 완전한 사본이라고 믿는다. 또한 꾸란은 신의 말씀으로 절대 신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꾸란이라고 하지 않고 꾸란 해설 즉 타프시로(Tafsir)<sup>11)</sup>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에도 최영길 박사의 번역으로 꾸란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꾸란이 번역되어 있다.

이슬람교의 영성은 꾸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들은 계시의 정결성<sup>12)</sup>을 주장한다. 이는 무함마드가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자였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꾸란이 기적으로 천사를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역사와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꾸란이 무슬림에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송되어지는 꾸란을 아랍어로<sup>13)</sup> 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충만을 경험하듯이 이슬람인들은 꾸란을 암송하므로 알라의 말씀과 그 힘에 의해 실제 현존을 체험한다고 한다.

꾸란의 구조는 총 114장<sup>14)</sup> 6,342절로 되어 있으며 분량은 신약 성경의 4/5정도 된

11) 꾸란은 아랍어로 읊어지고 전달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슬람 신조의 하나이다. 꾸란은 아랍어로 계시된 것을 내용으로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서는 안되며 번역될 수 없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입장이다. 한국 종교 연구회, 「세계 종교사 입문」, (서울: 청년사, 1989), p. 509를 참조하라.

12) 꾸란 53:2-5, 6:51, 25:5-7에 잘 나와 있다.

13) “우리(하나님)가 꾸란을 아랍어로 계시하나니 너희는 깨닫을 것이라”(꾸란 12:2).

“이것 이전에 모세의 성서가 안내자로서 그리고 은혜로 있었으며 아랍어로 된 이 성서가 그것을 확증하며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의로운 이들에게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꾸란 46:12)

14) 꾸란의 전114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개경의 장 2.암소의 장 3.이므란가의 장 4.여인의 장 5.식탁의 장 6.가축의 장 7.고백의 장 8.전리품의 장 9.회개의 장 10.요나의 장 11.후드 예언자의 장 12.요셉의 장 13.우리의 장 14.아브라함의 장 15.하지루 땅의 장 16.꿀벌의 장 17.밤여행의 장 18. 동굴의 장 19.마리아의 장 20.모세의 장 21.예언자의 장 22.순례자의 장 23.신자의 장 24.빛의 장 25.천계의 장 26.시인의 장 27.개미의 장 28.이야기의 장 29.거미의 장 30.로마제국의 장 31.투크만성자의 장 32.복배의 방 33.부족 연합의 장 34.사바 도시의 장 35.창조자의 장 36.찬양의 장 37.정렬자의 장 38.교훈의 장 39.집단의 장 40.신자의 장 41.경고의 장 42.협회의 장 43.장식의 장 44.연기의 장 45.무릎을 꿇는 장 46.모래 언덕의 장 47.무함마드의 장 48.승리의 장 49.방의 장 50.내세의 방 51.흩어지게 하는 것의 장 52.산의 장 53.별의 장 54.달의 장 55.자비로운 분의 장 56.사건의 장 57.무쇠의장 58.논쟁하는 여인의 장 59.추방의 장 60.시험받는 여신자의 장 61.대열의 장 62.집회의 장 63.위선자의 장 64.서로 속임의 장 65.이혼의 장 66.금자의 장 67.주권의 장 68.붓의 장 69.진신의 장 70.계단의 장 71.노아의 장 72.진의 장 73.옷을 뒤집어 입는 장 74.겉옷을 걸치는 장 75.부활의 장 76.시기의 장 77.파견의 장 78.소식의 장 79.잡아 뽑는 장 80.눈을 찡그리는 장 81.엄폐의 장 82.산산조각남의 장 83.저울을 속이는 장 84.갈라짐의 장 85.성좌의 장 86.밤의 방분자의 장 87.지고한 어른

다. 꾸란은 전 114장 중에 제9장을 제외한 113장은 모두 “자비롭고 자애하신 알라의 이름” 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무슬림 신앙은 꾸란에 대하여 절대적이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꾸란 자료 비판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꾸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신앙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꾸란의 위치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같다.

꾸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이 아니라 조화와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꾸란은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적인 교리가 망각으로 파멸되지 아니하고 오류로 소실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하지 않도록’<sup>15)</sup>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성경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이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sup>16)</sup>라고 단정해야 할 것이다.

### C. 이슬람의 교리

이슬람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아랍의 이교도의 교리들의 혼합<sup>17)</sup>으로 이루어졌다. 이슬람교는 5신(신앙)과 5행(행위)<sup>18)</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그를

---

의 장 88.은폐의 장 89.새벽의 장 90.도시의 장 91.태양의 장 92.밤의 장 93.아침의 장 94.확장의 장 95.무화과의 장 96.옹혈의 장 97.권능의 장 98.분명한 증거의 장 99.지진의 장 100.질주하는 말의 장 101.재난의 장 102.축적의 장 103.때의 장 104.중상자의 장 105.코끼리의 장 106.꾸라이쉬 부족의 장 107.필수품의 장 108.윤택의 장 109.불신자의 장 110.도움의 장 111.불길의 장 112.순수의장 113.여명의 장 114.사람의 장. 자세한 내용은 최영길 박사의 ‘꾸란 해설’을 참고 하라.

1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I.vi. 3.

16) Ibid., I.iii. 3.

17) cf. Francis Nigel Lee는 그의 글에서 이교도의 교리들의 혼합을 좀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약의 일부, 외경의 파편들, 신약의 조각들, 후기학파에 의해 일반적으로 저술된 Post-christian의 위서, 구약성서의 정경이나 외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책의 일부분, 아랍의 문화, 무함마드가 가장 좋아했던 아내 카디자에 의해 특별히 적은 무함마드의 개인적인 말들, 그리고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따랐던 전통들의 혼합으로 교리가 구성되었다.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p. 1.을 참고 하라.

18) 무슬림은 알라, 경전들(신, 구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모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른다. 무슬림들은 천사를 인정하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집행자라고 하늘과 땅에서 확고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믿는다. 그들은 일반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믿는다. 그들은 일반적인 심판과 죽고 난 후에 있을 심판 모두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전파했던 첫 번째 교리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만이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다<sup>19)</sup>. 그리하여 그 첫 번째 교리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외 시켰으며 모든 우상 숭배도 철저히 제외시켰다. 만일 무슬림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교도들과 사악한 사람들을 창조한 이유에 관하여 묻는다면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알기 위해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sup>20)</sup>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슬람교에 있어서 도덕이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슬람 케변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한다. 그들은 불확실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는 것에서조차 나타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발음할 때 허리를 굽히고,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하시며 가장 강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부른다.

이슬람의 꾸란과 전통집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지하드는(The Holy War)<sup>21)</sup> 는 무슬림 모두에게 지워진 개개인의 의무이다. 김정위 교수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운동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도덕과 종교의 측면에서 자기 완성을 달성하려는 신자의 노력을 뜻한다. 일부 학자 특히 시아파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의 지하드를 정신적 지하드 즉, 큰 지하드라 부르고 그 반대로 두 번째 의

---

믿는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종교적 의무는 신앙고백(shahadah), 기도(salah), 자선(zakah), 금식(sawm), 순례(haji) 다섯 가지이다.

19) cf. 무슬림의 첫 번째 의무는 그가 믿는 신앙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다.

“라 일라하 알라 알라와 모하멘 라술 알라”(La ilaha illa Allah ; Muhammad rasul Allah )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구절만 되풀이해서 외우면 누구든지 무슬림이 될 수 있다. 이 고백은 신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선지자직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우주의 유일하신 최고의 주님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며 무함마드의 선지자 직분을 믿고, 그분께서 제시한 종교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내세의 믿음과 함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책임이 추궁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20) Jerom Zanchius, *THE DOCTRINE OF ABSOLUTE PREDESTINATION*, translated by Augustus M. Toplady, (philadelphia: Still Waters Revival Books 1765-7), p. 154.

21) ‘지하드’라는 단어는 Jaahada(스스로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동사의 동명사(masdar)이고 그 뜻은 애씀, 노력, 불만, 불찬성 및 비난의 대상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 한다.



미의 지하드를 정신적 지하드 즉 작은 지하드라 부른다 대체로 지하드는 이 두 번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역사상으로는 이슬람의 확장과 방어를 목적으로 한 군사작전이 포함되어 있다.”<sup>22)</sup>

바로 이러한 지하드 운동의 개념은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독실한 무슬림들은 이 세상을 두 개의 영역, 즉 dar al-harb라는 전쟁의 영역과 dar al islam이라는 알라의 거룩한 법이 인정되고 지켜지는 영역으로 나눈다.<sup>23)</sup> 즉 알라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영역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알라의 법이 지켜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독실한 무슬림들은 ‘지하드’ 라는 알라의 성전을 행하는 것이며 이때 전사한 사람은 천국행이 보장된다고 하므로 전쟁에 출전한 이슬람 병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문을 암송하여 용감히 돌진한다.

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쟁끼우스는 무슬림들이 믿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교리들을 다음과 같이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sup>24)</sup>

- 무함마드는 그의 나이 4세에 성인이 되었고 그가 추종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무함마드를 데리고 가 그의 가슴을 열고 그의 심장을 꺼내어 그의 피 속에 있는 검은 핏방울들을 짜내어 버렸다고 한다. 그 검은 핏방울 속에 소위 fomes peccati (tinder of sin ;죄의 근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결과 그에게는 더 이상 fomes peccati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호메트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 그들은 술마시는 것, 장기, 카드놀이, 주사위놀이 등의 오락을 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다. 그들은 선행을 하늘의 공적으로 생각했다.
-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과 금식하는 것으로 존경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고백하며 자신이 이 땅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 환상, 열광을 자랑한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통과 공로를 중히 여긴다. 게다가 무슬림들은 어떤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제3의 장소 또는 중간지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22) 이슬람 연구소, 「이슬람의 이상과 현실」, (서울: 예영, 1996), p. 43.

23) J. H. 바빙크, 「선교적 변증학」 전호진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93), pp. 222-223.

24) Jerom Zanchius, *The Doctrine of Absolute predestination*, p. 154. 제롬 쟁키우스, 「절대 예정론」 김성봉 역, (서울: 나눔과 섬김, 2001), pp. 209-210을 참조.

- 그들은 신앙의 불멸성을 부인한다. 만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대중 앞에서 부인하고 모든 선행의 공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회개하면 그는 무슬림이 되고 다시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 무슬림의 광신자들은 엄격하고도 세상과 등진 삶을 산다. 그들은 육체의 고행을 위하여 날카로운 것들이 가득한 곳을 그의 몸에 긴 띠를 두르고 맨발로 걷는다.
- 무슬림의 고집은 대단한 것이어서 그들만이 지혜롭고 훌륭하며 거룩하고 그 나머지들은 어리석고 타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D. 이슬람의 운명론

이슬람 교리가운데에는 기독교의 예정론과 비교되는 운명론이 존재한다. 무함마드의 위력은 그들의 교리 즉 그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그의 뜻이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인 영원한 영의 전능의 편재를 가르치는 데 있다. 꾸란경과 외경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미래 운명이 엄밀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치며 인간의 자유에 대한 교리도 제시하면서 신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꾸란의 운명론과 성경의 예정론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교리이다. 로레인 뵈트너는 이슬람의 운명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세상만사의 유일 원인으로서 신을 강조하고 제2원인들은 모두 배제해 버린다. 인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 이전의 반문명국 단계에 있던 아라비아의 일반적 신념인 숙명론이 이슬람의 사변과 실제 생활에 지배적인 사상을 형성하였다. 숙명론이야말로 불가피적 필연성의 교리요 전능하고 전제적인 주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실제로 이슬람은 수단과 무관한 목적론적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교리와 역사를 연구해보면 이슬람의 예정론은 기독교 예정론의 모든 요소가 이슬람교의 체계 중에 흡수되어, 이교적 숙명론과 연합하여 이슬람의 예정론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25) 로레인 뵈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 외 1인 공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6), pp. 395-396.

있다. 이 두 교리의 최대의 유사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한다는 의지의 절대 주권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쾡키우스<sup>26)</sup>가 살았던 시대에 이슬람의 운명론 교리 속에 기독교의 예정론의 일부가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예정론이 경시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쾡키우스는 그의 절대 예정론에서 기독교 예정론에 대한 변증의 글로서<sup>27)</sup> 이슬람의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슬람의 운명론과 기독교의 예정론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쾡키우스는 그의 글에서 기독교의 예정론과 이슬람의 운명론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의 예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있건 무의미하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제2원인들의 고유한 각각의 성질에 대하여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맹목적이며 성급한 전체적인 힘으로 생각한다. 반면에 기독교교리에 따르면 예정은 지혜롭고 균형 잡힌 일관성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섭리는 어떤 이성적인 존재의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지적 능력의 개입 없이(자유로운 방식으로) 목적과 수단 모두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상호 연관된 각각의 방법과 수단의 중요성에 따라 할당되어지는 방식으로서 예정이 실행되도록 이끈다.”<sup>28)</sup>

쾡키우스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의 하나님은 인간의 성격을 무시하고 맹목적 복종만을 강요하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

26) 쾡키우스는 1516년 2월 2일 버가모에서 태어났으며 1553년 Strasburgh 대학에서 11년 동안 가르쳤으며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쾡키우스는 예정과 견인 그리고 성만찬에 관한 유명한 신앙고백선언서를 발표하여 1562년 10월 29일에 의회에 그것을 제출한다. 그 당시 그는 스트라스부르그에 일어났던 이 논쟁의 요점인 성만찬과 예정론 때문에 이단의 혐의를 받게 된다.

27) cf. 로레인 뷔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제26장 ‘무함마드의 예정론과 비교’를 살펴보라.

28) 이 지역의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 영역문을 부가한다. “They appear to consider predestination as a sort of blind, rapid, overbearing impetus, which, right or wrong, with means or without, carries all things violently before it with little or no attention to the peculiar and respective nature of second causes. Whereas, according to the Christian scheme, predestination forms a wise, regular, connected plan, and providence conducts the execution of it in such a manner as to assign their due share of importance to the correlative means, and secure the certainty both of means and end, without violating or forcing the intellectual powers of any one rational agent”

그의 작정에 대한 복종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정론<sup>29)</sup>은 구속의 장엄함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포함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는다.

칼빈은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해서'에서 예정론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드높게 찬양하며 선포해야 할 이 일을 극도의 악으로 회미하게 만들며 겸손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sup>30)</sup>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sup>31)</sup>

왜 그러한가? 그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진정한 겸손은 바로 예정론에 있기 때문이다. 구원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알게 될 때 그는 모든 것이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예정론으로부터 충분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흘러나온다. 예정론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다.

이 기독교의 예정론과 관련하여 로뢰인 베트너는 결론적으로 '알미니안 교리가 이슬람교도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거의 없다'<sup>32)</sup>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그 동기로 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주장하는 예정론이야말로 이슬람교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전향케 하는데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

29)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뜻이 계획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인데 이것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특별히 예정론이란 신적 작정의 교리를 구원에 적용한 것이다. 성경에 장차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일과 그 이외의 사람들이 버림을 받게 될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논하는 것이 예정론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어떤 사람들은(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요 복음의 핵심이다.

30) 김영규, 「예정과 구원의 서정, p. 10.

3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 III, 21, 1.

32) 로레인 비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p. 400.

### Ⅲ. 칼빈의 관점을 통해서 본 이슬람에 대한 해석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 칼빈(1509-64)은 동유럽에서 이슬람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다. 칼빈은 이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무함마드를 거짓 예언자로서 낙인찍는데는 주저하지 않았다.

#### A.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13:1-18, 18:15, 23:7, 29:25)

##### 1. 선지자 꿈꾸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신 13:1-8).

칼빈은 거짓 선지자로서 무함마드를 이 본문 가운데 적용한다. 그는 그의 신명기 13장 설교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기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다<sup>33)</sup>고 하면서 사악한 자들에 이슬람, 이교도 그리고 유대교를 말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썩어진 것 같이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 특히 칼빈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대와 기독교를 폐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더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교도가 여전히 맹목을 강조하고, 유대교가 율법의 거짓 해설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이슬람이 무함마드의 코란을 여전히 지키고, 교황주의자들이 그들의 미신들과의 관계를 여전히 맺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주장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이다. 교황주의자들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슬람도 동일한 것을 말하며 또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무함마드를

33)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p. 2. 칼빈의 설교에 관해서 영문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Dr Lee가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후에 나오는 설교는 Dr Lee의 CALVIN ON ISLAM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둘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육체로 그 자신을 계시하신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고안하고 세운 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2. 모세 같은 선지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명기 18:15).

이것은 주전 1400년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다. 이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후 600년경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올 것을 예언한 본문이라고 주장한다.<sup>34)</sup> 이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모세와 무함마드의 중간 역할을 하는 선지자이다. 실제로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만이란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분명한 예증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라고 하였더라”<sup>35)</sup>

여기서 아흐만은 이슬람 전통에서 무함마드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는 무함마드가 올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요, 표적, 메시아, 말씀, 종이며 하나님께 순종한 올바른 자 중의 한 사람이며, 심판대 증인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기적을 행한 자이고, 현세와 내세에 존경을 받을 만한 저명한 사람<sup>36)</sup>으로 보며 대속 사역으로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sup>37)</sup> 그들 대부분은 신이 예수를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유다로 추정되는 대리인이 예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sup>38)</sup>고 믿는다.

Dr. Lee는 그의 책에서 이슬람학자 Rashid Ahamed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34) 꾸란 3:48, 5:26-27, 5:49-50, 3:49, 43:63, 64 57:27.

35) 꾸란 61:6.

36) 꾸란 3:48-49, 4:159, 5:26-29, 49-50, 43:63, 57:27, 61, 64.

37)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 하였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치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었느니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에게 지식이 없음이며 단지 추측을 따르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예수)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니라”(꾸란 4:157-158).

38) 존 시먼즈, 「타문화권 복음 전달의 원리와 적용」 홍성철 역, (서울: 세복, 1995), p. 317.

“그는 꾸란에서 무함마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선지자는 모세에 의해 예언된 선지자이다. 그 선지자는 예수도 세례요한도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타났고 거의 600년 바란산에 앞서서 비추인다.... 무함마드가 태어났다”<sup>39)</sup>

그러나 칼빈은 1556-1557년에 신명기(18:15,33:2)를 설교하면서 꾸란과 자신의 법령을 전능한 지혜라고 말하는 이슬람과 로마교황을 적그리스도의 두 뿔<sup>40)</sup>로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칼빈은 신명기 33장 2절<sup>41)</sup>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바란 산으로부터 이슬람이 주장하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앞서 올 어떤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을 언급한 것이다. 칼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의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들 앞에서 확증하셨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모세는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였고 그 백성들을 진실 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미신으로 흐르지 않게 할 합법적인 사역자들로서 그 선지자들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선지자적인 직무를 친히 완전하게 나타내실 가장 큰 선생이 오리라는 것을 약속하였던 것으로’<sup>42)</sup> 설명하고 있다. 성경<sup>43)</sup>은 분명하게 신명기 18:15에 오신 자로서 예언된 자는 무함마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무함마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때 곧 보낼 성령이시고 그는 약속된 위로자이시다. 또한 백성들을 위하는 자이다. 여기 이슬람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 B.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신명기 29:25)

칼빈의 신명기<sup>44)</sup> 주석에서 모세는 이제 거짓된 선생들이 그들 중에 일어날 경우에

39)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p. 3.

40) Ibid.

41)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취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신 33:2)

42) 존 칼빈, 「칼빈 성경 주석 2」 칼빈 주석 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1999), p. 429.

43) 성경은 분명하게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 성육하신 예수(요 1:19-25), 보혜사(14:16,26), 진리의 성령(16:7-15), 베드로의 설교(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한 말이다. 행 3:22-26), 스테반의 설교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7:37-59), 위의 내용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들을 쉽사리 믿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또 사람들이 만들어 낸 온갖 기상 천외한 것들을 조심하며 어떤 사람의 선동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율법은 이교민족들과 분리하여 주어졌으며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칼빈은 그의 신명기29장 설교를 통해 유대주의를 구약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유일신적 이슬람에 포함시키고 있다.<sup>45)</sup>

이슬람에게 있어서 알라는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며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슬람에게 있어서 알라의 유일성은 꾸란 112장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는 ‘낳지도 아니하시고 태어나지도 아니하시는 분’<sup>46)</sup>으로 알라를 소개함으로써 철저히 삼신론을 배척한다. 이들은 성령의 존재를 부인한다. 단지 성령은 무함마드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유일신 알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유일신 개념이다. 그러면 유일신 하나님이 같다고 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게 말 할 수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sup>47)</sup>로 존재하시는데 이것은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음적 신학의 구조적 개념이며 신앙적인 체험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우상과 좀 더 구별하시기 위해 또 다른 특성을 통해 자신을 보여 주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sup>48)</sup>주장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은 육신을 입으시고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신성과 성령의 신성에 대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자신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삼위 하나님으로 알리시며 아무도 하나님을 세분으로 상상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삼위로 분할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내신다.

44)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신 29:25)

45)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p. 4.

46)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르라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홀로 계시고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 그분께서는 낳지도 아니하시고 태어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며”(꾸란 112)

47)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8)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 I. 13. 2.



이러한 점에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이슬람과 유대주의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기에 단지 머리에서 하나님이라는 공허한 이름만을 가지고 있으며 참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적 계시 종교의 증거이며 인간이 만들어 낸 이슬람의 유일신 알라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분 이시다.

### C. 적정과 절도의 원리(욥기 4:13,15)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 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뻗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 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욥기 4:13-15).

모세에게 그의 예언이 주어졌던 거의 동일한 때에 욥 또한 중요한 선포를 하게된다. 사실 이것은 지금은 이미 완성된 성경의 기록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욥에게 온 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후에는 낮에 있었던 그 이상이나 혹은 밤의 꿈으로서의 더 이상의 계시는 없었다.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극심한 호기심은 단순함에 만족하지 못함을 말하면서 이것이 이슬람에서 발견됨을 지적하고 있다.

“무함마드는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자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고 말한다. 이것 때문에 이슬람은 이성을 잃은 짐승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에 몰두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칼빈은 이 일이 하나님의 복수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허락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49)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p. 5.

“또한 주께서 깊이 감추어 두시기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가장 영원하고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억지로 풀어내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다 즉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신 범위 내에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sup>50)</sup>

이 원리가 칼빈의 신학의 독특한 방식이다. 즉 신학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의 어떤 곳에서도 찾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지 않으며 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오직 성경’과 ‘호기심 거절’이라는 원리로 규정되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이다.<sup>51)</sup> 이것이 칼빈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이며 우리는 성경이외에 어떤 이상과 새로운 계시를 기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외에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꾸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과 유사한 책이 아니라 모두가 사기이며 속임수이다.

## D. 예언서의 해석에 있어서의 역사학적인 관점

### 1. 다니엘 주석(2:34, 2:44, 7:7-20, 12:1-13)

#### a. 꿈을 주시는 이유

당시의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열 지파는 포로로 사로잡혔으며, 유다 왕국은 황량한 가운데 치욕과 수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에 비록 그들의 귀환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비참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심각하고 혼란한 소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지탱 받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국에 대한 꿈을 바벨론 왕에게 주신 이유였다. 즉 꿈의 해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되살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갈

50)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559」, III. 21. 1.

51) 김영규,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미간논문, pp. 3-4.

대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하며, 그후에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이 마게도냐인들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만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이 세상의 정복자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느부갓네살왕에게 네 제국과 그들을 멸망케 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주 가혹했던 재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남아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sup>52)</sup>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에 어떤 심한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신다(7:8).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미리 경고하심으로 신자들의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셨으며 미래의 사건을 예언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에 걸쳐 벌어지는 전쟁과 격변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다스려지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 b. 꿈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단 2:32-34).

다니엘 선지자는 2장32절에서 2장44절까지의 본문에서 메시아가 와서 네 번째 세상 제국을 파산시킬 것을 예언하였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느브가네살왕에게 그가 꾸었던 꿈의 한 통치자에 관해서 말했다. 주석가들은 모두 이 구절을 바벨론제국, 바사제국, 마게도냐제국, 로마제국으로 해석하며, 다니엘 선지자도 이후에 그러하다는 것을 자신의 말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 b. 꿈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사

52)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12」, p. 174.

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  
매”(단2:32-34)

다니엘 선지자는 2장32절에서 2장44절까지의 본문에서 메시아가 와서 네 번째 세상 제국을 파산시킬 것을 예언하였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느브가네살왕에게 그가 꾸었던 꿈의 한 통치자에 관해서 말했다. 주석가들은 모두 이 구절을 바벨론제국, 바사제국 마게도냐제국, 로마제국으로 해석하며, 다니엘 선지자도 이후에 그러하다는 것을 자신의 말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보지 않고는 달리 이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그들이 네 번째 제국이 로마제국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면 그들은 율법에 약속된 메시아의 도래를 입증하는 복음을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네 번째 제국이 이스마엘의 제국이라 불리는 터키 제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53)</sup>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니엘 11장37절에 무서운 폭군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이 폭군을 교황과 무함마드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sup>54)</sup>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은 이런 주장을 그럴 듯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무함마드는 일부다처를 허락함으로써 정욕을 일삼았고 교황은 강제적인 독신 생활을 강조함으로써 결혼의 영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사소한 일치점 외에 나머지는 이 주장에 맞지 않는다.

Dr. Lee는 그의 책에서 마지막 왕국 로마제국의 범위를 말할 때 동로마 제국을 위시한 교황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과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으로 모두 포함시켜 해석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두 다리로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 하고 있다. Dr. Lee의 로마제국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유대인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칼빈은 다니엘서 주석에서 이러한 견해가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로마제국을 유대인들과 같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다.

바빙크에 따르면<sup>55)</sup> 구약의 예언은 첫 번째 도래와 두 번째 도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심판을 위한 마지막 도래를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도래 이후 긴 시간 공간을 두지 않고 있다. 메시아가 그의 백성에게 의와 축복을 선물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는 도래는 한 도래이다. 때문에 그가 기초하기 위해서 오신 그 왕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이다. 구약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시간적 차이를 두지 않는다. 구약은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종말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

53) Ibid., pp. 184-194.

54)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13」, pp. 338-339.

55) 김영규, 「교회론, 종말론」 미간논문, 2001, pp. 32-34.

는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표현하고 있다(단 2:44).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주석할때에도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중간 기간을 두지 않고 한 통치로 이해함으로 ‘뜨인들’을 해석해야 한다.

## 2.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2:3,8,13-16)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 2:3).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전에 오래 끄는 전투를 이겨내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특별히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 성장해 가는 교회가 마치 폭풍을 만나 파선하는 배처럼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에 당황치 아니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을 부추김으로써 교회가 분산되는 일이 있더라도 새삼스러운 일 인양 겁을 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은 세상이 배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휘어잡기 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다. 여기서 ‘배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배교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소수의 개인으로 제한될 수 없다.<sup>56)</sup> 지금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교들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섬기기로 이전에 이미 참가했던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보이는 교회의 일부로 일반적인 변질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바울의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면서 바울이 오래 전에 이미 경고하였기에 오랫동안 폐허상태에 놓여 있는 건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1550년 칼빈의 시대에도 교회의 오래 계속되는 흠어짐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에 의한 것이 아닌 양,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흥측한 모습이 오래 전부터 예언된 일이라는 점을 깨닫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이 불법의 사람을 어느 개인 즉 네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카톨릭과 이슬람으로 보고 있다.

56)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18」, p. 494.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 한 복판에 가증스러운 자리를 세울 목적으로 탈취하기로 된 한 왕국을 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는 로마 카톨릭 제도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본다. 무함마드가 배도자가 되어 그의 추종자들인 터어키족을 그리스도에게서 따돌리게 되자 이 배신은 더 넓게 확대되었다. 모든 이단자들은 자기들의 당파를 이용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해 오고 있으며 이 결과 그리스도로부터의 이탈이 많아지게 되었다”<sup>57)</sup>

칼빈은 실제로 바울의 훌륭한 예언이 자신의 시대에 확증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배도자로서 교회의 절반을 폭력으로 쪼개어 간 이슬람교와 나머지 절반은 로마 카톨릭이 그의 독으로 감염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2:8)

여기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파멸을 예언하면서 그의 파멸의 모습을 곧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멸절될 것이라는 점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발하시는 광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분산시켜 버리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씀의 이러한 승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입의 기운’이란 단지 그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이다.<sup>58)</sup> 여기서 참되고 건전한 가르침이 충분히 모든 불경건을 끝장내고 언제든 사단의 모든 계략을 능가하기로 내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승리는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2:13-16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인들과 악인들을 보다 더 명백하게 구별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다가오는 배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의도는 단지 이 세대 뿐 아니라 다가오는 장차 세대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었다. 곧 그들이 보기에 거의 온 세상이 마치

57)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18」, p. 495.

58) cf.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11장 4절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서 선지자는 똑같은 의미로 ‘그의 입의 막대기’와 ‘그의 입술의 기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물리치고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내쫓는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타인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 까닭은 숨 한 번만 내쉬거나 말씀 한 마디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칼빈주석 구약6권」 pp. 383-389을 참조하라.

거친 폭풍우 속에서처럼 파멸되더라도 그들의 생명의 상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계속 평화롭고 안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일을 언급하고 있다. 즉 그는 경건한 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그들의 신앙을 보강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권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59)</sup>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살후 3:1)

바울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라는 말로써 그는 자기가 개인적인 유익이나 관심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음의 가르침이 제 길을 ‘달려가도록’ 하려는 뜻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란 유포를 그리고 영광은 더 많게 되는 것을 뜻한다.<sup>60)</sup> 곧 그의 복음 전파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재형성하는 능력의 효력이 수반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슬람제국이 우리 주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sup>61)</sup> 특히 대요리 문답<sup>62)</sup>의 둘째 기원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탄의 왕국이 멸망되어질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교회가 타락으로부터

59)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18」, p. 494.

60) Ibid., p.512.

61)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계시록 11:15).

62) G.I. 윌리암슨, 「대요리 문답강해」 최덕성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pp. 390-391.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구비되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중에 있는 자들의 회심과 그리고 이미 회심된 자들의 확립, 위안 양육이 효과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재림의 때와 우리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재촉하시도록 기도하고, 그가 그의 권세의 나라를 목적을 위한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온 세계에서 행하심을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터 정결케 되길 기도하며,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날마다 주님이 오기를 기도하라는 당부를 받고 있는 셈이다.

### 3. 요한1서 주석(2:18-23, 4:3,6)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한1서 2:18-19).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지도 모르는 공격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항할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치 이 예언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듯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성을 가슴에 품고 세상 만물이 때가 차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이외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동안을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현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한은 신자들이 이 거짓을 추방하는데 더 신중하고 조심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63)</sup>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후 2:3)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악의 일종으로서 전 교회적으로 ‘배도’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한1서 2:22).

사도요한은 마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 칼빈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더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한 마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께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데로 예수님을 인식하여야만 하기

63)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17」, pp. 211-213.



때문이다.<sup>64)</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그리스도를 단순한 환상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말시온,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벨리우스,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능력을 박탈한 펠라기우스, 인간의 선행이 의와 구원을 얻는데 한 몫을 차지하는 가톨릭 교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무슬림과 유대주의를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적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

사도 요한도 이들이 성자와 똑같이 성부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지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한1서 4:3,6).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한다. 오늘날 로마카톨릭은 그들이 만들어낸 온갖 전통들과 창안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함마드 역시 그의 꿈은 하늘의 계시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진위(眞僞)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볼 때에 분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의 신실한 해설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 4. 요한 계시록9장 1-22절에 대한 해석

칼빈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못한 채, 1564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슬람에 대한 그의 견해는 기독교 강요와 편지, 주석과 설교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으며 주석들 중에서 다니엘서, 데살로니가후서, 요한1서와 같은 예언서들을 역사성에 바탕을 둔 시각으로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특별히 그의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일서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영향은 그의 동료 및 후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발견이 된다.

---

60) Ibid., p. 217.

여기에 참고한 6권의 책들은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각 책들의 저자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 책들만으로는 분명히 알 수 없으며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계시록 9장의 역사적인 해석을 참고하고자 한다.

### a. 요한 계시록 9장 1-22절<sup>65)</sup> 내용.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 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재앙이라는 ‘삼대 칠중 재앙’이 있을 것인데 본문은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재앙의 구체적 수단은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다(1-3절). 사단에 의해 열려진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 온 황충은 앞의 네 재앙과 같이 자연계는 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만을 해하되(4절) 죽이지는 못하고 다섯달 동안 괴롭게 한다(5절). 그러나 그 해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나 죽지 못한다(6절). 그리고 이어 재앙을 내리는 수단인 황충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7-10절) 그것을 움직이는 조종사인 사단의 색다른 명칭이 언급되어 있다(11절). 마지막으로 다섯째 재앙 이후에도 아직 두 개의 나팔 재앙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본 단락은 마감된다(12절).

### b. 역사적인 해석

65) 요한 계시록 9장 1-1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홍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읽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러한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계시록 9장을 이슬람의 탄생과 사라센 제국(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발전으로 기술하고 있다. 역사적인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을 수사 세르기우스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이 정치적인 지위 하락과 성직자의 지위 하락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66)</sup> 그래서 로마 교황이나 무함마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직자의 세계에서도 정치적인 세계에서도 떨어져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떨어진 별은 그에게 주어진 열쇠로 무저갱을 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곧 이어 무저갱으로부터 큰 연기가 올라오고 그것이 해와 공기를 가려 어둡게 하였다.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다. 지옥은 어둠의 집이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빛과 지식을 제거하며, 무지와 과오를 증진시킴으로서 그의 계획을 성사시킨다. 마귀는 먼저 사람을 속이고 다음에는 그들을 멸망시킨다.’<sup>67)</sup> 진리는 빛이다. 죄는 어둠이다.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모든 거짓의 허위의 것들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함으로써 열방들을 속이고 있다. 역사적인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꾸란의 교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떨어진 별을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말한다고 주장한다.<sup>68)</sup> M’Leod Alexander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는 미혹과 망상의 체계인 이슬람을 세우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지옥의 존재를 증명하였고, 온 세상이 도덕적인 어둠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 세르기우스에 잘 들어맞는다.”

66) M’Leod Alexander, *Lecture Upon the Principal Prophecies of the Revelation* (New York, 1814), p. 152.

67) 메튜 헨리, 「성서 주석 시리즈 계시록 45」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6), p. 533.

68) cf. M’Leod Alexander, *Lecture Upon the Principal Prophecies of the Revelation* David Steele, Notes on the Apocalypse

E.B. Elliott, *Horae Apocalypticæ; or, A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Critical and Historical; Including Also An Examination of the Chief Prophecies of Daniel*(vol. I)

George Faber, *A Dissertation ofn the Prophecies, That Have Been Fulfilled, Are now Fulfilling, or Will Hereafter Be Fulfilled Relative to the Great Period of 1260 Years: The Papal and Mohammedan Apostacies; The Tyrannical reign of Antichrist, or the Infidel Power: and the Restoration of the Jews*(vol. II)

Thomas Newton, *Dissertations on the Prophecies Which Have remarkably Been fulfilled, and at this Time are Fulfilling in the World*(vol. II),

이와 같이 역사적인 해석은 이 떨어진 별을 기독교 사도였지만 후에 무함마드의 보좌교로 알려졌던 수사 세르기우스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위에 나오는 황충에 관한 해석이다. 성경에서 종종 황충은 엄청나고도 처참한 재앙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묘사가 되기도 한다.<sup>69)</sup> 자연적인 황충들은 날아다니는 곤충들로서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수목들에 대하여 아주 파괴적이다. 그들은 주로 아시아에 번성하며 때때로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날아다닌다. 이것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구름과도 비교할 수 있고 이것은 그들이 지나가는 어디든지 폐허로 만들만큼 위협적이다. 이것들은 애굽 출애굽 당시 열 가지 재앙중의 하나이었고 선지자들에 의해 파괴하는 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출 10:14-19; 요엘 1:6,2:4-6). 이러한 사실 가운데, 황충의 상징은 특별히 그것이 연기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파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학적 해석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6세기가 끝날 무렵 동로마제국을 침략한 야만인에게서 찾는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에 의해 만들어진 이슬람이라는 거짓 교리 하에 갑자기 그 수가 증가되었으며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이다.'<sup>70)</sup> 황충의 원산지인 아라비아의 역사가 이 예언의 해석을<sup>71)</sup> 뒷받침하고 있다.

또 이 황충에게는 임금이 있는데 그가 지옥의 사자요 무저갱으로부터 온 마귀의 대리자이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아블루온이다. 이 두 단어의 뜻은 모두 파괴자를 뜻한다. 이 임금은 파괴하는 군대의 대장으로서 행동하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에 동로마제국의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로서 있다.

이 황충의 권세는 하나님의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 황충에 의한 재앙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들은 기독교의 대항하는 나라 또는 사람들이며 또한 진리의 내용 없이 입으로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명백하게 보호된다.

세 번째는 기한에 관한 해석이다.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기간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번성하는 여름철과 같이 5개월이다. 다섯달은 150일로서 선지자의 날로 계산하면 150년에 해당한다(에스겔 4:6). 특히 Elliotts는 '이슬람교도들이 과거 7.8세기' 즉

69) 신명기 28:28; 왕상 8:37; 대하 6:28, 7:13; 욥 1-2장을 보라.

70) Alexander M'Leod, *Lecture Upon the Principal Prophecies of the Revelation*, pp. 152-153.

71) David Steele, *Notes on the Apocalypse*, p. 114.

612년에서 762년에 시리아, 페르시아, 인디아, 이집트, 스페인 등을 무섭게 파괴했으며 762년에 칼리프의 한 사람에 의해 바그다드가 세워짐으로 약탈이 멈추게 되는 150년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sup>72)</sup>

### c. 현대 주석 가들의 견해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 떨어진 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해석들<sup>73)</sup>이 있다. 많은 주석 가들은 일반적으로 신구약 성경<sup>74)</sup>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의심할 여지없이 사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sup>75)</sup>

일반적으로 ‘떨어졌다’<sup>76)</sup>는 것은 ‘타락했다’ 또는 ‘나쁘게 되었다’는 의미로서<sup>77)</sup>악한 천사를 가리키며 이미 오래 전에 하늘에서 떨어졌음을 나타내 준다. 한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말세의 어느 때에 사단이 마음껏 돌아다니며 온갖 악행을 자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황충은 전면적으로 세상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소위 말세의 대환난의 때에 준동할 사단의 세력으로 보며 종말의 어느 때에 일어날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사단의 세력인 황충을 과거 한 시대에만 나타났던 존재들로 국한 시켜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달 동안’은 단순히 짧은 기간이나 하나님에 의해 제한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재앙을 종말적인 사건보다는 죄 짓는 생활의 상태로 해석한다.<sup>78)</sup> 헨드릭슨은 이 묘사를 ‘현시대에 어두움의 권세가 악한 자들의 영혼에 작용한

72) E.B. Elliott, *Horae Apocalypticæ; or, A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Critical and Historical; Including Also An Examination of the Chief Prophecies of Daniel*(vol. I), Still Waters Revival Books (1862), p.

73) 네로(Weymouth의 학설), 혹은 타락한 천사(Simcox, Love의 학설), 혹은 악령(Kiddle의 학설), 혹은 사단 자신(Hendriksen, Atkinson의 학설 : swete는 사단 유사설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Torrance의 학설), 천사 우리엘과 유사함(Charles의 학설), 주님 자신(Berkeley)이라는 학설이 있다.

74) 사 14:12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눅 10:18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5) Tertullian, Arethas, Bede, Aalford, Greijdenus. Barclay, Walvoord, Vitringa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76) 떨어진 별에 해당하는 원어 ‘페프토코타’는 완료형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별의 떨어짐은 지금 이 시점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하늘에서 떨어졌음을 나타내 준다.

77) 제자원, 「그랜드 성경 주석 20」(서울: 성서교재 주식회사, 1998), p. 179.

78) 로버트 마운즈, 「성경주석 뉴인턴내셔널 요한계시록」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것'으로 본다.<sup>79)</sup> 현대 주석가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만 국한시켜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는 역사적인 해석이 계시록 전체의 성격과 잘 합치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지 않다.

#### d. 개혁신학에서의 견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의 다양한 견해<sup>80)</sup>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선과 악의 오랜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거스틴과 중세의 대부분 학자들이 주장했던 견해였으며 종교 개혁시대의 개혁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각 시대의 주요한 역사와 연관시켰으며 로마카톨릭과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개혁주의자들은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이 요한 계시록에 예언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견해는 Luther(1522), Melancthon(1543), Bullinger(1577)이어, Foxe(1584), Napier(1793), Downham(1603), Brightman(1614), Pareus(1618), 그리고

---

1987), p. 232

79) 윌리엄 핸드릭슨, 「요한계시록」 김영익 외 1인 공역, (서울: 아가페, 1983), p. 147.

80)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의 이 견해는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거주의**는 계시록 내용이 주로 요한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즉 유대주의나 이교주의와는 투쟁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과거주의는 계시록 2장과 3장이 소아시아에 실존했던 일곱교회에 보낸 실제적인 편지였으며 요한이 당시의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줄 수 있었으며, 무릇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당시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뒷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초대 교회 당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래주의**는 계시록의 내용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그 후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미래주의는 계시록이 2장과 3장을 제외하고는 주로 미래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당시의 신자들에게 미래의 궁극적 승리를 통해서 위로를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역사적 해석을 약화시키고 요한 당시의 신자들에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약점이 있다. **셋째, 역사주의**는 계시록의 내용이 요한 당시로부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의 청사진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역사주의는 계시록의 말씀을 각 시대의 주요한 역사와 적용시켜 적실화하며,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신주적 사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주의는 초대 교회 당시의 신자들에게 적실성이 없고, 주로 서양의 역사에 초점을 뒀던 억지로 두들겨 맞추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기 시대에 정점을 이루는 역사를 말한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넷째, 상징주의**는 계시록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상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어느 시대에나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주로 무천년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징주의는 계시록의 구체적인 예언을 약화시키고 재림의 징조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며 교훈에서 자극과 경성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권성수 교수의 요한계시록 pp. 513-316을 참고 하라.)

그후에 Davenport(1633), Mede(1637)로 이어진다. 또 John Cotton(1639)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동안 행해지는 기도 가운데 모든 민족의 범위에 특별히 이슬람(터어키)을 포함시켰으며, 이 견해는 Thomas Goodwin(1639), Thomas Parker(1646), James Durham(1657), Increase Mather(1669)에 이어진다. 사실 18세기 이후에도 계시록에 이슬람이 예언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으며, Campegius Vitringa(1705), Matthew Henry (1712), Jonathan Edwards(1739), John Gill(1758), George Stanley Faber(1806), Edward Bickersteth(1836), Louis Gaussen(1837), Edward Elliott(1845), Albert Barnes(1851), Apostolos Makrakis(1881), Philip Mauro(1908), Leroy Edwin Froom (1948), Francis Nigel Lee (2000)<sup>81)</sup>, 등은 이 견해를 지지했다.

권성수교수는 그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조지 래드의 원근통시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언자의 현재 및 근접미래와 궁극적 종말 사건이라는 두 개의 초점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시록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동시에 재림 직전과 직후의 미래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주의와 미래주의가 혼합된 원근통시의 원리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상징주의적인 해석방식의 기초위에 각 입장의 장점을 적절하게 취하는 혼합적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sup>82)</sup>.

김영규교수는 그의 책 '교회론과 종말론'에서 '종말론은 기독교 안에 있고 그 자체가 기독교이요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승리에 대한 교리로서 전체를 삼위일체 하나님, 즉 신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sup>83)</sup>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동시적으로 보며 심판 전의 천년의 시기를 부정하고 천년이라는 기간을 긴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과 관련하여 적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영적 각성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 9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의 성취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도구들 중의 하나로서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1) Francis Nigel Lee, *ISLAM IN THE BIBLE*, p. 14.

82) 권성수, 「요한계시록」, (서울: 선교넷북, 2000), pp. 519- 520.

83) 김영규, 「교회론 종말론」 미간논문, 2001, pp. 25-43.

## E. 무슬림을 부르시는 하나님

칼빈이 무슬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 그는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에 의해 복음화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또한 많은 무슬림을 거룩한 신구약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예정하셨음을 믿는다’<sup>84)</sup>고 고백하고 있다. 칼빈은 신명기 23:7로부터 이것을 추론한다.<sup>85)</sup> 그는 할례 받지 못한 에돔족속안에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있는 것같이 세례 받지 못한 무슬림이 아직은 우리의 형제는 아니지만 미워해서는 않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신 특별한 언급 때문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신명기 23:7에 설교에서 칼빈은 세례 받은 에돔을 세례 받은 로마카톨릭에 비유하고 세례 받지 못한 애굽을 세례 받지 못한 무슬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세례 받은 에돔 로마 가톨릭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모세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종족을 포기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받아드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가운데 세례 받은 로마카톨릭이 받아드려졌음을 밝히고 있다.<sup>86)</sup> 로마카톨릭이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발자국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교회를 유지하는 수단인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인 할례가 주어졌지만 결국 상속자가 아니기에 잘려졌음을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고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배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2. 애굽사람 무슬림

84)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p. 14.

85)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86) Francis Nigel Lee, *CALVIN ON ISLAM*, p. 15.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사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 몇몇은 가나안을 향해 그들과 함께 힘든 여행을 했으며 이스라엘 무리가운데 받아드려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근 때에 거기서 피난처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칼빈은 여기 ‘애굽 사람’에 무슬림을 비교하면서 무슬림들 또한 교회 안에 받아드려져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87)</sup>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잔혹한 전체 정치로 무자비한 속박으로 억압을 받은 것처럼 이슬람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몇몇의 무슬림들에 의해 잔혹한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45편에 ‘장차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게 될 사실에 관한 두드러진 예언’<sup>88)</sup>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이 부르심에 의해 무슬림들을 받아드려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문이 애굽과 애굽인들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무슬림을 포함한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3.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

칼빈은 지상 명령에 대한 그의 견해와 이사야(19장 21-25절)<sup>89)</sup> 주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의 참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많은 무슬림이 돌아오도록 예정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들과 화해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애굽인들은 개종하자마자 즉시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하심을 온 세계로 퍼뜨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특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뿌리 깊은 원수였으며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것같이 보였던 두 민족(앗수르와 애굽)에 대

87) Ibid., p. 16.

88)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4」, pp. 356-358.

89)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으로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찌어다 하실 것임이니라”(이사야 19:21-25).

해서 말하고 있다.<sup>90)</sup>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실 만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민족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부르심에 완고한 이슬람이 포함되어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24절에 애굽인들과 앗수르인들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축복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끝으로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사야는 이 축복이 애굽인들과 앗수르인들에게도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하며<sup>91)</sup>, 또한 이 두 민족의 이름 하에 나머지 모든 민족을 포함시키시는 것이다<sup>92)</sup>. 우리는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에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와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90)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7」, pp. 118-123.

91) Ibid., pp. 123-125.

92) cf. 비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아무도 자녀로 삼지 않으셨으나 이제 아무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불리시기를 원하신다(창 17:7; 출 19:5-6; 신 7:6, 14:2).

## IV. 이슬람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앞에서 우리는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그가 이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칼빈이 이슬람을 포함한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보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A.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역

#### (죄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의 3중 행위 개념)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지속적인 대치 관계에 있어 왔다. 지금 역시 이슬람은 기독교와 적대관계에 있으며 많은 회교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그들 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계의 곳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환란이 존재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이땅에 환란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악의 존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을 예정하셨다면 죄 또한 은밀한 방식으로 계획하신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죄, 죽음, 악의 존재 그리고 영원한 심판은 다른 모든 것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방법이야말로 놀랍고 형언키 어려운 것이어서 비록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못해 허용하시지 않고 기꺼이 허용하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sup>93)</sup>

93) 존 칼빈, 「기독교 강요1559」, I, 18, 3.

칼빈은 악의 현상에 있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의 개념에서 이를 3중 행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도 행하고 동시에(simul) 하나님도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에는 서로 다른 방식과 목적이 있을 뿐이다.<sup>94)</sup>

성경 읍기를 통하여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목적과 행위 방식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 목적에 있어서 주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의 종 읍의 인내를 연습시키시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탄은 목적에 있어서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가고자 노력하였으며 갈대아인들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 사탄, 갈대아인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 있는 기능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방식에 있어서도 주님은 사탄에게 그의 종이 시달리도록 허락하셨고 이를 위해 갈대아인들을 사탄의 사역자로 넘겨주셨고 사탄은 그의 사악함으로 갈대아인의 마음에 사악한 마음을 일으켰으며 갈대아인들로 미친 듯이 그의 불의로 치달아 그 죄에 많은 무리가 참여하여 죄를 짓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sup>95)</sup>.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 의지가 모든 것들의 원인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그의 은밀히 정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다만 그의 뜻은 그의 자신 안에서도 하나요 단순하지만 우리 인간의 무능력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다양하게 뜻하고 계시며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섭리가 다양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원인자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섭리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을 허용하신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부당하다거나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B.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그릇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거기

94)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 37.

95) 존 칼빈, 「기독교 강요1559」, I, 18, 1.

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의 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사용하시는 섭리의 방식과 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데 있었다<sup>96)</sup>.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심으로 열 가지 재앙을 애굽가운데 내리신다. 여기서 성경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을, 또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신 주체로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출 9:16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97)</sup> 첫째는 바로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예정이며, 이 예정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밀한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 예정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를 세우신 것과 그의 성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바울은 바로가 어떤 보편적이고 혼돈된 자극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무모하게 악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님<sup>98)</sup>을 말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그가 원해서 그의 본성대로 행한 것이다.

무함마드와 이슬람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를 들어 쓰신 방식과 동일하게 섭리하신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와 그 추종자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고 그들을 자신들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두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 냈으며 그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성전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다.

기독교는 핍박과 순교의 피 아래서만이 올바르게 성장한다. 초대교회 이후 로마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커다란 핍박은 기독교를 강하고 또한 순결하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과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7세기 이슬람의 태동기에 동로마제국의 기독교의 상황은 두가지 면에서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었다. 첫째로 올바른

96) 출 9:16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97) 존 칼빈, 「칼빈 성경 주석 19」, p. 303.

98) Ibid., p. 304.

진리의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하여 온 세상이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었고, 교회마저 올바른 교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둘째로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슬람이 탄생하였고 곧 이슬람은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하나님은 무함마드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세속적 욕심을 허용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심으로 부패와 쇠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고자 하신 것이다. 계시록의 일곱 재앙은 바로 이러한 암울한 교회의 상황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계시록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이해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로마서9장의 표현대로라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와 이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예정하시고 지으셨으며,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대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무리들에게 이사야서 45장9절의 예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지음 받은 물건(it)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의 비난할 수 없는 형평은 선택자의 구원에서처럼 유기자의 멸망에서도 분명하게 찾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로마서 9장22절을 살펴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복과 노함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진노의 그릇들도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사용한 ‘그릇’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개념은 ‘도구’를 의미한다. 어떤 피조물이 행한 행위가든지간에 그것은 신적 능력을 집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공흠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주께서 그의 공흠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며 유기된 자들이 진노의 그릇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여 주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24절에서 공흠의 그릇들의 범위를 모든 민족으로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유대인

들 중에서 뿐 만 아니라 그에게 못지 않게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되어졌다.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베풀어짐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모으시고, 전에는 이방인과 나그네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모든 복과 화의 동일한 주체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그릇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긍휼의 그릇의 범위 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드신 긍휼의 그릇이 속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V. 이슬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

현재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 하는 종교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의 특징은 나라 전체가 이슬람을 믿을 것을 강요하며 스스로 이슬람 국가임을 자칭하는 것이다. 폴 마샬은 그의 책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를 통하여 이슬람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다<sup>99)</sup>. 수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집트 등의 회교국에서는 샤리안 법<sup>100)</sup>을 통하여 기독교 선교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전도가 발각될 경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형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자국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해, 강간 및 고문 등을 통한 개종, 극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5개국 외에도 많은 회교권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테러와 차별 가운데 살고 있다. 지금도 회교국내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과 강제 수용소 또는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슬람국가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심지어 목숨까지도-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전부터 기독교를 믿어 왔던 사람들에게 대한 박해보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핍박이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다. 가족들은 그를 버리고 죽이는 것을 서슴치 않으며 모든 사회적인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슬람 선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위협하고 힘든 사역임에 틀림없다. 또한 소위 '열매'라고 하는 결신자를 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회교국가 내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슬람 선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것은 이슬람권내에서 개종자의 수가 극히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99) 폴 마샬,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0), pp. 26-72.

100) 샤리안 법(Shari'a)은 이슬람법이다. '샤르' 혹은 '샤리아' 즉, 성스런 계명과 지침의 길로 흔히 불리게 된 이 법은 불변의 핵심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이슬람법의 원천으로는 꾸란, 하디스, 끼야스, 이즈마가 있다. 하디스(Hadith)는 순나가 기록되어 집대성된 것을 말한다. 하디스는 순나의 전달 수단이다. 끼야스(Qiyas)는 유추적 추론, 꾸란이나 하디스를 근거로 유추해서 이슬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즈마(Ijma')는 합의, 꾸란이나 하디스 등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올라마들의 합의에 의해 이슬람법적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분야에 가장 통찰력 있는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은 샤리안 법을 이슬람 정신의 요점이며 가장 결정적인 이슬람 사상의 표현이며 이슬람의 본질적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Gibb의 '이슬람'을 참고하라. Gibb, 「이슬람」, pp. 103-118.



우리 나라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후 선교사역의 평가는 대개의 경우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선교 역시 일종의 투자로서 선교비를 투자한 만큼 교회의 성장(수적인 증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이슬람 선교는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으며 선교사들조차 이슬람 선교에 대하여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몇가지 이유에서 이슬람 선교는 타지역의 선교와 구별되며 따라서 기존의 선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선교사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을 영화로운 백성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참 이스라엘에게로 불러주신다. 이리하여 그들로 구원에 동참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자신의 웅대한 작업이며 새 시대의 작업이고 열방이 임의로 행하던 시대가 지난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행 14:16). 하이델베르그 문답 제54문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전 인류로부터 교회를 모으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만민에게 증거”(사 55:4)가 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신앙고백의 반석(petra) 위에 세우신다(마 16:18). 선교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다. 우리의 약한 손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 즉 저 강력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 오히려 저 건물은 홀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자라난다(엡 2:20-22).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란 전혀 실패한 것이 못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sup>101)</sup>

예정론의 입장에서 선교를 바라볼 때 역시 선교 사역의 주체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구원을 받을 대상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도구로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선교의 궁극적 원인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게 된다. 또한 모든 선교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받을 백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일이 바로 선교사역이다. 예정론에 대한 강조는 적극적인 선교의 참여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무위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택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방편까지 완벽하게 예비하셨다는 것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커다란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하신 일이고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101) J. H. 바빙크, 「선교학 개론」, pp. 80-81.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미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면 과연 선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토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정(작정)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선교사역의 결과들보다 선행하면서 또한 그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결정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죽지 않고 구원될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었다(24-25절). 하지만 이 목적(모든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죽지 않고 구원될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선원들이 선상에 남아 있어야 하였던 것(31절)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하셨다면 목적(모든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죽지 않고 구원될 것)과 방편(선원들이 선상에 남아 있어야 하였던 것)사이의 상관 관계를 제정하였고, 목적이 방편의 결과로서만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위축시키기보다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의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수고의 대가로 성공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기울이도록 격려하며, 또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sup>102)</sup>.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의 진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103)</sup>.

무슬림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예정하셨으며 또한 이들을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곳 가운데로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다. 이슬람 선교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는 이슬람 선교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비록 선교사역의 열매가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때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상급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102)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외 1인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p. 309-310.

10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 VI. 결론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위대한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진리의 교리와 진정한 도덕성이며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마음과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심을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신앙고백 안에서, 진실된 도덕적 행실가운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진리와 거룩함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신앙심 없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표지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쇠락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전통(orthodoxy)과 올바른 행실의 부재, 또는 이 둘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부재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심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과 그들의 신앙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설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 뒷 면과 같아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비록 그 둘 중 하나가 남아 있을지라도 그 영향을 받아 나머지 하나 역시 곧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다.

7세기 초의 교회의 상황은 진리의 교리와 진정한 도덕성 모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바로 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재건과 택자들의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기독교 내부에는 교황제도의 공식적 확립을 그리고 기독교 외부에는 이슬람의 탄생을 하락하셨다.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한 이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진리의 교리 대신 거짓 교리로 무장한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탄생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교회가 진정한 도덕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위만을 통하여 본다면 기독교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철저한 신앙의 삶을 강조하는 이슬람의 기형적인 신앙형태를 낳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꾸란과 자신의 법령을 전능한 지혜라고 말하는 이슬람과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두 뿔로 말하고 있으며 유대주의를 구약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유일신적 이슬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슬람의 유일신 알라를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적 계시 종교의 증거임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요한1서 주석을 통해서 이 곳에서의 예언이 칼빈 자신의 시대에 로마카톨릭과 이슬람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계승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9장을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 9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의 성취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도구들 중의 하나로서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서 성경은 이슬람을 단순히 기독교에 적대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영적 각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노의 그릇으로 바라보게 한다.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칼빈은 신명기와 이사야 주석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의 참 삼위 일체 하나님 앞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회심 또한 언급하고 있으며, 무슬림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예정하시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곳 가운데로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슬람 선교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는 이슬람 선교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짓 교리에 매어있는 무슬림들에게 참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다. 비록 외롭고 힘든 이슬람 선교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의 자리가 허락한다면 선교사는 죽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서 영원히 빛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라는 진리가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 1차 자료

- Alexander, M'Leod. *"Lecture Upon the Principal Prophecies of the Revelation"*  
Still Waters Revival Books, 1814.
- David, Steele. *"Notes on the Apocalypse"* Still Waters Revival Books, 1870.
- Elliott, E. B. *"Horae Apocalypticæ; or, A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Critical and Historical; Including Also An Examination of the Chief Prophecies of Daniel"(vol. I)* Still Waters Revival Books, 1862.
- George, Stanley Faber. *"A Dissertation ofn the Prophecies, That Have Been Fulfilled, Are now Fulfilling, or Will Hereafter Be Fulfilled Relative to the Great Period of 1260 Years: The Papal and Mohammedan Apostacies; The Tyrannical reign of Antichrist, or the Infidel Power: and the Restoration of the Jews"(vol. II)* Still Waters Revival Books, 1811.
- Lee, Francis Nigel. *"CALVIN ON ISLAM"* Caldwell-Morrow Lecturer in Church history at the Queensland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Brisbane, Australia, 2000.
- Lee, Francis Nigel. *"ISLAM IN THE BIBLE"* Caldwell-Morrow Lecturer in Church history at the Queensland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Brisbane, Australia, 2000.
- Martinson, Paul Vara. *"Islam"*, Translated by Stefanie Ormsby cox, Augsburg Fortress, 1994.
- Newton, Thomas. *"Dissertations on the Prophecies Which Have remarkably Been fulfilled, and at this Time are Fulfilling in the World"(vol. II)*, Still Waters Revival Books, 1817.
- Zanchius, Jerom. *"THE DOCTRINE OF ABSOLUTE PREDESTINATION"*  
Translated by Augustus M.Toplady, Still Waters Revival Books, 1765-7.

## B. 2차 자료

### 1. 칼빈에 관한 자료

-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강의안」 안양대 신학대학원, 1998.
- \_\_\_\_\_. 「기독교 강요 강의안 I」 안양대 신학대학원, 1998.
- \_\_\_\_\_.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9.
- \_\_\_\_\_.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미간 논문.
- \_\_\_\_\_. 「조직신학 편람」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6.
- \_\_\_\_\_. 「교회론, 종말론」 미간 논문, 2001.
- \_\_\_\_\_.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미간 논문.
- 베트너, 로레인.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의 1인 공역. 서울: 베다니, 1996.
-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의 1인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윌리엄스, G.I.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0.
- \_\_\_\_\_. 「소요리문답강해」 최덕성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 최정만. 「칼빈의 선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칼빈, 존. 「칼빈 성경주석 1권-20권」 칼빈주석출판위원회, 서울: 성서원, 1999.
- \_\_\_\_\_.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 \_\_\_\_\_. 「기독교강요」 김종흡의 2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_\_\_\_\_. 「존 칼빈의 신학 논문」 김진수의 1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2. 이슬람에 관한 자료

#### a. 번역서적

- Abdalati, hammudah. 「이슬람의 실상」 한국 이슬람 중앙회 역. 서울: 한국 이슬람 중앙연합회, 1990.
- Anderson, J.N.D. 「비교종교론」 박영관 역.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8.
- Anderson, Norman 「세계의 종교들」 미태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 Ann, Lambton. 「중세 이슬람의 국가와 정부」 김정휘 역. 서울: 민음사, 1992.
- Bavink, J.H.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8.

- Bavink, J.H. 「선교적 변증학」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Bosch, D.J.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 1985.
- Bud, Jack.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중동선교 역. 서울: 두란노, 1992.
- Cooper, Anne. 「우리형제 이스마엘」 두란노 역. 서울: 두란노, 1992.
- Elder, John. 「무슬림을 향한 성경적 접근」 KTM 편집부 역. 서울: 퍼내기, 1992.
- Gibb, H.A.R. 「이슬람」 이희수 외1인 공역. 서울: 도서출판 주류성, 1978.
- Ishak, Ibrahim. 「이슬람교 세계와 기독교 선교방향」 윤삼열 역. 서울: 보이서사, 1985.
- Johnstone, Patrick. 「세계선교와 기도정보」 조무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Kzltzi Mozlz. 「이슬람의 상황」 선교 한국90 조직위원회, 1990.
- Marsh, C.R. 「사하라의 시내들」 김병희 역. 서울: 전도출판사, 1994.
- Marsh, C.R. 「모슬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자」 이광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Marvison, G.E. 「이슬람교란 무엇인가?」 임홍빈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8.
- Parshall, Phil. 「십자가와 초승달」 이숙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5.
- 베르카일, 요하네스. 「현대 선교 신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아흐만, 쿠르쉬드. 「이슬람 그 의의와 메시지」 서울: 우리터, 1993.
- 오티스, 조지 주니어, 마크 부룩맨. 「10/40 창문에 비쳐진 견고한 진」 임상범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89.
- 채프만, 코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전재욱 역. 서울: 이슬람연구소, 1996.
- 허버트, 폴. 「선교와 문화 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6.

## b. 국내서적

- 공주일. 「이싸냐? 예수냐?」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7.
- 두상달. 「중동선교」(제22~24호) 서울: 중동선교본부, 1993.
- 이승수. 「미전도지역 무슬림 세계를 향한 선교」 서울: 예루살렘, 1992.
- 이슬람 연구소. 「이슬람의 이상과 현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 \_\_\_\_\_. 「무슬림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 서정길. 「마호멧 전기」 서울: 설화당, 1971.
- 지봉운. 「세계 7대 종교」 서울: 총회출판국, 1996.



### 3. 계시록에 관한 자료.

- 김서택. 「요한계시록 강해설교2」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선교회, 1998.
- 권성수. 「요한계시록」 서울: 선교햇불, 1999.
- 마운즈, 로버트. 「성경주석 뉴인터내셔널 요한계시록」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 모리스. 「요한계시록 주석」 김근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3.
- 브룩스, 리차드. 「요한계시록」 이중수 역. 서울: 도서출판목회자료사, 1993.
- 석원태. 「요한 계시록 강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월콕, 마이클. 「요한계시록」 정옥배 역. 서울: 두란노, 1989.
- 이상근. 「신약주해 요한계시록」 대구:성등사, 1993.
- 제자원. 「그랜드 성경 주석 Vol 20」 서울: 성서 교재 주식회사, 1998.
- 휴즈, E 필립. 「요한 계시록 주석」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3.
- 헨드릭슨, 윌리엄. 「요한계시록」 이중수 역. 서울: 도서출판목회자료사, 1993.
- 헨리, 메튜. 「성서 주석 시리즈 계시록」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6.